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회원여러분은 지금...

동정

- ◆ 한중광 / 전국재해구호협회 상임이사 취임
Tel. 02)3272-0123
FAX. 02)3272-0122
- ◆ 김인태 / EBS의 '한국애니메이션의 발전' (9월 12일 저녁 7시40분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 ◆ 최상현, 안평선 / 제3회 김천가족극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9/13~17)
- ◆ 청송희(회장 최동호) / 9월 17일 격월간 열리는 정례회의를 북한산 산록에서 갖고 별식을 즐기며 노래방까지 순방(?)
- ◆ 홍승국 / 딸 수경(수원 시청공무원) 수진(KBS 보도본부 정치부 기자)은 어머니를 여인후 15년여동안 재혼하지 않고 자신들을 뒷바라지해온 아버지를 모시고 프랑스·스위스·이태리 등

3개국을 9월 4일~14일까지 열흘간 효도관광

자녀결혼

- ◆ 박동식 / 아들 (9.11)
- ◆ 김영태 / 아들 (9.11)
- ◆ 이수영 / 아들 (9.11)
- ◆ 최동호 / 딸 (9.12)

고희

- ◆ 박성하 / (9. 2)
- ◆ 성기영 / (9.10)
- ◆ 김점식 / (9.12)
- ◆ 이공순 / (9.29)

방송기술 표준 연구소 설립 소장에 박상규

박상규 전 기술 본부장이 9월 15일 한국방송기술표준연구소(KBTC) 소장에 취임했다. KBTC는 11월부터 위성방송과 지상파 방송분야의 표준화와 인증을 수행한다. (Tel. 784-0213, 0216)

수고했습니다

KBS 3·4분기 정년퇴임자 28명은 9월 23일 오전10시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 ◆ 윤광선 / 방송기술연구팀
- ◆ 황대운 / 수원센터팀
- ◆ 김성웅 / 외주제작팀
- ◆ 정엽수 / 중계기술팀
- ◆ 권혁부 / 시사보도팀
- ◆ 김필건 / 영상취재팀
- ◆ 전상열 / 영상그래픽팀
- ◆ 정해관 / 영상그래픽팀
- ◆ 이성원 / 영상그래픽팀
- ◆ 지원일 / 스튜디오 중계영상팀
- ◆ 이항수 / 스튜디오 중계영상팀
- ◆ 강태인 / TV제작기술팀
- ◆ 흥기택 / 라디오제작기술팀
- ◆ 이양세 / 남양송신소
- ◆ 김광용 / 건설기전팀
- ◆ 정재황 / 건설기전팀
- ◆ 김영화 / 남산송신소
- ◆ 지기욱 / 김제송신소
- ◆ 유동열 / 김제송신소
- ◆ 이삼근 / 김제송신소
- ◆ 윤상욱 / 총무팀
- ◆ 최덕용 / 재원관리팀
- ◆ 김주형 /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팀
- ◆ 김병래 /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팀
- ◆ 강종한 / 광주방송총국 총무팀
- ◆ 진태연 / 광주방송총국 총무팀
- ◆ 박상록 / 대전방송총국 편성제작팀
- ◆ 정상용 / 청주방송총국 총무팀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박상규 /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74 삼성④ 103-701 (02-2636-1406)
- 고수용 / 150-76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④ 1-1403 (KBL사업본부장 02-2106-3007) (02-784-1133, 011-9386-1133)
- 호천용 / 463-0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7, (신성대 첨단영상미디어과 교수 041-350-1160, (031-705-6592, 016-312-6568)
- 김광남 / 157-862,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3 태진④ 105-1002 (02-2659-5515, 011-720-4757)
- 박남훈 / 411-817,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현대 밀라트 1차 C-817 (031-904-5072) (기독교 방송 사업 단장 02-2650-7167, 011-9021-7011)
- 이왕세 / 441-460,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LG빌리지 103-1704 (031-297-3363)
- 박동식 /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3-28 501호 (02-558-7330)
- 김우식 / 138-847,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5 한솔④ 104-101 (인덕대학교 950-7442, 02-419-6884)
- 김종건 / 449-533, 경기 용인시 신봉동 473 LG자이1차④ 109-602 (031-262-5306)
- 류근찬 / 411-410,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대화마을 LG빌리지 104-501 (국회의원 02-784-3859) (031-911-8855)
- 김성수 / 799-801,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 (054-791-3011, 016-517-3011)
- 남승욱 / 135-11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④82-101 (서울 교통방송(TBS)본부장 02-311-5100, 02-546-1138)
- 유용우 / 423-030,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④ 105-1403 ((주)토탈코리아(조명렌탈) 02-2684-2782, 011-898-9182)

회비내신분

박명양 정이론 정천학 신영춘 고수용 호천용 김광남 박남훈 이장춘 박상규 박노설 김점식 배재철 김병기 이왕세 오용근 김영일 한운찬 최돈민 박동식 정희준 김우식 김종건 강현충 이해영 노병현 방흥안 이용실 류근찬 문인상 송태성 김성배 어호선 하태준 김중현 김성수 남승욱 이유호 박영환 최상현 유용우
8월 16일 ~ 9월 22일 <회비납부일자순>
송금계좌: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KBS 공제회 준회원 자격 범위 확대 15년이상 재직의원면직자 포함

KBS 공제회는 9월 13일 이사회에서 공제회 준회원 자격범위를 '정년 및 명예 퇴직자'에서 15년 이상 재직의 '의원 면직자' 까지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준회원 자격 적용시기는 10월 1일부터이며 아래와 같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 ▲ 본인사망= 30만원/ 조화 10만원
- ▲ 배우자사망= 10만원/ 조화 10만원
- ▲ 자녀결혼= 10만원
- ▲ 부모(배우자 부모포함)사망= 조화 10만원



KBSi가 도약하고 있습니다.

- 창사이래 최초 반기흑자 달성
- 전환사채 자력상환
- KBSi.co.kr 도메인 확보
- VOD 콘텐츠 250만불 수출
- 장외주식 주가 회복세

KBS인터넷(주) 주요 사업분야

- 유무선 디지털콘텐츠 유통 ● 온라인광고
- 웹에이전시 ● 방송SI(System Integration)

歷史散策-⑥



서기환

광주 남종면(南終面) 분원리의 이름은 근래에 알려졌다. 조선시대 후기 관료가 있던 곳으로 가마터를 복원하여 문화유적으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이다.

분원이란 궁중의 부역의 그릇을 관장하는 사용원(司饗院)의 분소란 뜻이며, 이를테면 조정직영의 도자기 공장이었다.

조선조가 망하자 분원은 폐쇄됐고 일제시대에 가마터가 준비했던 언덕을 뚫개어 초등학교를 지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수한 사금파리가 지표에 널려 있다.

분원 초등학교 마당에 서서 북쪽 팔당호를 내려다 보면 조선 도공들의 숙명적인 삶이 연상되고 그들이 만든 조선백자에 대한 심회가 새로와 진다. 흔히 '분원 갑반'이란 말을 한다. 반이란 그릇을 구울때 뚜껑을 씌운 것을 의미한다.

장작을 땔때 나오는 재같은 것이 묻지 않도록 뚜껑을 씌웠던 것이다. 그래서 분원갑반은 때깔이 곱고 모양새도 좋다.

그렇수밖에 없는 것이 사용원에서 감독관이 나와 물건을 검사하여 선별했고 또 청화(靑華)백자의 경우 궁중의 화원이 나와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도자기 애호가들은 분원갑반의 청화백자를 선호해왔고 값도 비싸다.

그러나 나의 취향으로 말하면 분원것보다도 이름없는 민간가마에서 나온(대개 지방가마라고 한다)것에서 조선도자기의 진수를 느끼며 더 애정이 간다. 그것은 사용자 또는 감상자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도공들 자신의 본능과 솜씨에 충실한 소산이며 그만큼 순수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도자기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감상

그것이 좋은 것이다.

더구나 도공은 사회 신분적으로 천민이나 다름없는 최하층의 대접을 받았고 대를 이어 종사했기에 신분상승의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도공들의 삶은 숙명이었다.

그러기에 도공들이 사는 마을은 운명공동체의 결속이 강했고 그들 나름의 삶의 지혜와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

은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세례를 받은 일정한 수준의 미의식과 감식안으로 걸러서 나온것이다.

나는 분원리의 가마터를 구경하면서 조선의 도공들의 삶을 상상하며 그들이 야말로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었나싶은 감회에 젖는다. 유명(有名)과 삼합화에 골몰하는 현대 예술가들에게 무언의 반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분원리에서 중부고속도로로 나가는 중간에 광주군 퇴촌면(退村面) 천진암(天真庵)이 있다. 지금 그일대는 천주교회에서 거대한 역사적 건조물을 세우려고 대역사(大役事)가 진행중이다. 천진암은 18세기 중엽 양반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교리를 연구하고, 포교를 의논하는 일종의 아지트였다. 깊은 산중인데다 남한강 줄기에 흠어져 사는 천주교 신자들이 배타고 모이기 편한 곳이었다.

대개 양반지식층이었지만 권세에서 소외된 남인(南人)들이었고 그중에는 정약용 형제들, 권철신·일신 형제 그리고 이벽 이가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의 천주교는 선교사에 의한 포교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일어난 세계에서도 희귀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니까 천진암은 일종의 지하 교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남한강 일대의 사기 장촌(도공 마을)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고 또 사교(邪敎)탄압에 의한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사기장촌 사람들은 운명적인 인고(忍苦)의 삶을 이어가면서 하느님의 이상세계를 꿈꾸며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팔당호 남쪽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조선 도공들의 모습을 추상(追想)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본회 고문으로 소설가이며 KBS 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예술원 회원임)

分院里 풍경

조선도공의 삶을 기리며
진솔한 조형미와 감수성에 끌려

과 쓰임새이다.

소유하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감상자의 기호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 모든 도구로서의 쓰임새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게 실용적인 것을 만들면 그만이다. 하지만 수요자가 쓰임새만 따진다 해도 그사람 나름의 미적(美的) 감수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수준의 조성미는 당연히 갖추어지게 마련이다. 이때의 일정수준의 감수성이란 곧 일반백성(태반이 농민이었지만)의 그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요에서 나온 도자기를 이 야말로 당시 조선 백성의 눈(鑑鑒眼) 높이인 셈이며 여기에 조선 도자기의 묘미와 진면목이 있다.

근·현대예술은 수요자의 눈에 드는(다분히 아첨하는) 작품을 만들어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예술가의 속성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조선도자기는 분원것을 포함해서 도시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감상자에 아첨하지 않는데서 감수성의 진솔한 표현이 나온다. 나는

거기서 울어나오는 안정감과 삶을 긍정하는 낙천성(樂天性) 그리고 해학이 있었다.

그런것이 분원것이건 민요것이건 한결같이 걸로 우러나온다. 조선 도자기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작자의 철저한 무명성(無名性)이다. 중국의 도자기는 작자의 이름이 없더라도 가마의 이름은 금시 알수 있게 돼있고 일본의 도자기는 거의가 습명(襲名)으로 작자의 이름이 표시돼왔고 물론 지금도 그렇다. 임진왜란때 끌려간 조선도공의 후손이라고 하는 심수관(沈壽官)씨가 좋은 예이다.

중국의 도자기는 단정하고 위풍이 있어 보이고 일본것은 아기자기한 기교가 있고 장식적(裝飾的)이다.

조선 도자기는 허세도 없고 모양을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조선 도자기에 더 끌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근래 서양사람들도 조선도자기의 미에 눈을 뜨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도자기가 중동지방이나 이집트의 원시예술로서의 도자기와 같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를 사랑하는 사원모임
'KBS발전협의회' 출범

KBS를 사랑하며 앞날을 걱정하는 사원들의 모임인 'KBS발전협의회'가 9월 13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KBS발전협의회는 PD, 경영, 기술등 직종별 14명의 발기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선언문을 채택하고 협의회 의장에 윤명식 심의팀 PD, 그리고 공동대표로 박성명 심의팀 PD, 안준상 라디오 제작기술팀, 이광연 장비보전팀, 차갑진 심

의팀 PD, 차근철 수원센터팀, 정병균 장비보전팀을 선출했다. 협의회 회원은 85명이다. 창립선언문은 "국가 백년대계의 교량이 되어야 할 KBS가 지금은 지난 어느 정권때보다 더욱 철저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방송의 공정성회복, 내부적인 무질서와 경영의 난맥상 극복을 주장했다.

'난시청 해소 프로젝트' 발족

KBS는 시청자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난시청 해소 프로젝트 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정책기획센터 하부조직으로 각 직종을 망라해서 팀원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방송법 및 전파법에 규정된 난시청 개념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규정하는 새로운 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1TV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 출발호조

1TV의 대하사극 '불멸의 이

순신'이 방송 2주만에 SBS 특별기획 드라마 '매직'을 누르고 시청률 20%를 넘어섰다.

닐슨 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9월 12일 4회 시청률이 22.9%로 '매직' 17.5%를 크게 앞질렀으며 TNS 시청률 조사에서도 '불멸의 이순신'이 21.0%로 19.5%로 나타난 '매직'을 앞섰다.

'KBS AMERICA' 개국

KBS 국제 위성방송 'KBS 월드'가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9월 6일 자정(현지 시간)부터 매일 24시간 방송에 들어갔다. 새로운 KBS AMERICA를 통해

확대되는 이번 방송으로 해외동포들에 대한 방송 서비스와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 그리고 KBS의 독자적인 채널 정체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새로 개국한 'KBS AMERICA'는 LA,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시애틀, 애틀란타의 동포 225만여명을 대상으로 KBS월드 채널을 공급할 계획이다.

TV드라마 공모 우수작에
'마녀 재판'

KBS가 지난 6월 25일 마감한 17회 TV드라마 공모에 마창준씨의 '마녀 재판'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가작에는 김사경씨의 '쥐 잡는 날'과 김희연씨의 '우리가 졌', 황희연씨의 '아내의 일기' 등 세편이 뽑혔다. 당선작은 특집 드라마로 만들어지며 '드라마 시티' 시간대에 방송될 예정이다.

KBS스페셜
한국경제제3의길
방송위 선정 이달의좋은 프로그램

1TV 'KBS스페셜-한국경제제3의 길'이 방송위원회가 선정

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기업·노동·정부 분야별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2FM 유열의
음악앨범 10주년

2FM 유열의 음악앨범이 10월 1일 10주년을 맞는다. 이 프로그램은 유열이라는 한 명의 DJ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10년 동안 방송을 진행해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10명의 넘는 프로듀서가 거쳐갔다.

94년 10월 1일 첫 방송을 시

KBS SKY 격투기 한일전 개최

KBS SKY가 9월 12일 서울 삼성동 김피아에서 네오 파이트 4 라이트급 8강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2일 충주 세계무술축제에서 개최되는 헤비급 챔피언전에 앞서 치러지는 라이트급 (72Kg 이하) 8강 토너먼트로 복싱, 특공무술, 킥복싱 등 각 유파의 무술 강자들이 우승컵을 놓고 맞붙었다.

사우회만평



잘돼야 할텐데...

방송위 “SBS허가 再審”

‘공공성등 부족’ 이유... 내달 2차 의견청취

방송위원회는 9월 14일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추진 심사과정에서 재허가 요건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1차 의견청취를 한 결과, SBS와 KBS 청주·부산 지역국, 대전 MBC, 경인방송, 강원민방 등 9개 방송사를 추가 소명을 위한 2차의견 청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

으며, 10월초 있을 2차 의견 청취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추천거부’나 ‘조건부추천’ 등의 결정을 하게 돼 적절한 소명을 못한 방송사는 사업자 허가가 취소 될 수도 있다.

방송위는 SBS에 대해서는 ▲ 방송 수익의 사회환원 미흡 ▲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부족 ▲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을 지적했다.

KBS 등 방송 3사 가을 개편 돌입

KBS, MBC, SBS 등 방송 3사 가을 개편작업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KBS는 소폭 개편, MBC는 부분 대응, SBS는 공격 편성인 것으로 그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편 시기는 모두 10월 중인 것을 알려졌다.

한편 EBS가 <TV 정치 교실> 등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가을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시사 평론가 정범구씨가 진행하는 <TV정치 교실>로 미니 다큐멘터리, 패널 토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송평가위원 9인 위촉

방송위원회는 8월31일 평가위

원장에 박준영 방송위 상임위원이, 평가위원에 유숙렬 방송위원장 정강자 한국여성 민우회 공동대표,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동섭 한양대 신문학과 교수, 장영국 전KBS 기획조정실장, 유철근 대성회계법인 이사, 유선영 변호사 등 9명이 위촉됐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의해 2004년 9월 1일부터 1년간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라디오 21’ 신임사장 명계남

인터넷라디오 방송사인 ‘라디오 21’(구 노무현 라디오)은 9월 2일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 사장에 명계남 전 노사모 회장, 부

사장에 이상호 전 ‘국민의 힘’ 대표, 이사에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과 영화배우 문성근씨, 열린우리당 김갑수 부대변인을 각각 선임했다.

‘뉴스 앤 뉴스’ 현소환 신임대표

현소환 1P1(국제언론인 협회)종신회원은 9월 17일 인터넷신문 ‘뉴스 앤 뉴스’ 대표에 취임했다. 현대표는 연합통신(현 연합뉴스)과 YTN사장을 역임했다.

재미동포 윤, CNN앵커

한국계 미국여성인 유니스 윤(31)이 8월 23일 부터 CNN의 간판 프로그램 ‘CNN투데이’의 앵커와 현장 취재 기자로 발탁, 활약하고 있다.

윤&양 합동법률 사무소의 윤호일 공동대표 차녀인 그녀는 서울에서 아리랑 TV와 YTN의 영어방송을 2년여동안 진행했다.

美ABC 바버라 월터스 40년만에 은퇴

올해 74세로 미국 방송계에서 일한지 40여년이 된 여성 앵커 바버라 월터스가 9월 17일 방송계를 은퇴했다.

NBC ‘투데이쇼’를 거쳐 1975년 ABC에서 첫 여성 앵커로 뉴스프로그램을 맡았던 그녀는 휴다운스와 함께 ‘20/20’을 25년간 진행하면서 744회의 인터뷰를 했다.

부로 눈을 돌려 행사를 실시했다. 바둑실력은 늘지않고, 급수는 제자리걸음인데... 한급수라도 늘지 않았을까하는 기대 심리가 누구나 있다. 승급은 공식대국에서 인정이된다. 사우회바둑대회의 ABC 각조 우승자는 무조건 한급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지난 5월 18일 대회때부터 아마단을 신설하여 A조 1급에서 우승하고도 승급되지않던 점을 해결해 놓았다. 아마 4.5.6단 등 얼마든지 승단이 가능해졌다.

승패를 떠나 멋진 수를 얼마나 잘두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반집이라도 이겨 야하는 것이 바둑의 묘미가 아닐까?

‘至誠一到 金可透’ 지극한 정성이 한 곳으로 집중될 때 쇠라도 능히 뚫을 수 있다는 명언을 새겨보면서 회원들의 아름다운 미담이나 바둑의 심오한 경지를 따라 더 좋은 소식이 넘쳐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글 : 변정호 바둑분과위원장)

PD연합회 18대 회장에 정호식 취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9월 6일 63빌딩에서 정호식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정회장은 취임사에서 “방송제작 자율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86년 MBC에 입사해 PD로활동했으며 최근에는 16대 PD연합회 편집국주관을 역임했다.

iTV 노조 ‘공익민방’ 투쟁선언

iTV노조는 9월10일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에게 ‘공익적 민영방송’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가 이처럼 ‘동양’을 압박하고 나선것은 방송위의 재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이 공익적 민영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우회, 신임회장 취임 한영섭 현 회장

(사)한국방송인 동우회는 9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차기회장에 한영섭 현회장을 재선임 했다.

한회장의 임기는 2008년 9월 까지이다.

- 한회장 약력
- ▲ 49년 KBS (기자)입사
 - ▲ 59년 KBS 보도실장
 - ▲ 93년 LG전자 협력회 중앙 회장
 - ▲ 2000년~대한언론인회 부 회장, 감사(현)

주소변경 회원

- 차달식 / 680-705, 경남 양산시 웅상을 주남리 961 (진주방송국 기술부 055-740-7541, 051-503-3477, 011-832-3477)
- 김종선 / 302-817, 대전 서구 내동5번지 벽산 블루민 맑은아침④ 102-1506 (042-523-3246, 018-455-3246)
- 이계복 / 150-75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4 한전현대④ 106-2004 (차형근법률사무소 532-6799, 02-2631-1801)
- 전유중 / 151-021,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730 대우푸르지오④ 119-503 (방송기기정비국 02-781-5408, 02-864-7467)
- 이공순 / 150-8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만하현21 오피스텔 1208 (02-784-7585, 011-357-7585)
- 전용철 / 156-020,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2 현대④ 104-804 (02-813-9800, 016-795-8880)
- 민석동 / 300-172, 대전 동구 삼성2동 솔랑④ 102-1006 (042-628-9481, 019-553-9481)
- 김동원 / 135-942,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725-7 (02-3411-9646, 019-468-7807)
- 임은진 / 360-77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42 부영1차④ 101-204 (043-262-6500)
- 어호선 / 420-709,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사랑마을 청구④ 1624-801 (032-323-6677, 019-533-4737)
- 천우병 / 641-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43-7 (055-283-5939, 011-581-8383)
- 이승규 / 540-320,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7 동신2차④ 203-804 (방송망 김제송신소 061-722-3712)
- 박현중 / 157-013,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91 화곡푸르지오④ 108-401 (02-2065-9123, 011-295-1412)
- 윤송남 / 135-832,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8번지 두산위브④ 201-1201 (02-548-2417, 011-754-2417)
- 정엽수 / 138-240,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크로바④ 2-1003 (중계기술국 781-5825, 02-421-3097, 010-4664-3097)
- 한중광 / 463-86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611-701 ((주)현암 i 02-365-5051, 02-335-4306)
- 정의륜 / 210-111, 강원 강릉시 포남1동 1005-249강부④ 1차 B-204 (라이카OA 644-3211, 033-646-4644, 010-6382-5511)
- 현 서 / 150-106,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100 동양④ 101-602 (02-6747-2890, 010-2324-2890)
- 김준호 /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469-81 리치하우스 B동 402호 ((주)코리아나국제투자자문 318-6417, 02-995-3039, 011-9095-6417)
- 김병원 / 701-024, 대구 동구 신천4동 405 경북④ B-501 (053-743-5938)
- 송영수 / 423-030, 경기 광명시 철산동 주공④ 337-108 (032-884-6118)
- 박중길 / 137-948,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④ 103-1206 (02-598-9491, 019-9220-5568)
- 김찬식 / 415-755, 경기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 현대프라임④ 214-302 (031-984-3075)
- 이상욱 / 463-0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첸트빌 D-2905 (031-782-0665)
- 이재구 /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8가 91 방산푸르지오④ 104-902 (02-2659-7614)

바둑분과는...



언제부터인가 바둑을즐기는 애호가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성인남성 열명중 세네명은 대국경험이 있을정도로 대중화가 되었고 컴퓨터의 보급으로 안방에서도 인터넷바둑을 즐기다가하면 바둑 TV를 통해서 한수 배우며 즐기는 세상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바둑대회 때 A조의 우승은 이내일회원이 차지했었는데 미담하나만 소개하면 평소 취미가 있어 영업용택시 기사직을 자원하여 핸들을 잡은지 1년여가 흘러

되었다. 돌이켜보면, 사우회바둑대회가 최초로 치루어지기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된다. 1988년 9월 18명의 바둑회원이 참여하여당시 이종봉 바둑분

16년 전통의 바둑대회

韓國放送公社 바둑대회 제4회 바둑대회 1990. 11. 29



과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매년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김호영, 김무중, 박중길 회원이 뒤를 이어 위원장직을 맡아오면서 모두 31회에 걸쳐, 연인원 700명의 회원이 참여, 바둑을 통한 우의와 친목을 나누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대회장소만해도 방배, 일산, 관악산, 일품기원등 외



요즘 어떠세요?

全英雨 선배와 차 한잔 나누며

“요즘 방송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말 쓰임에 기초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강남 논현동의 아담하고 깨끗한 한 카페 겸 제과점에서 만난 全英雨 선배는 변형되고 있는 요즘의 우리말에 대한 현상부터 걱정을 한다.

40년간 국어의 話法 연구에 전념

“초, 중, 고등학교에 국어 교육이 없어요. 글자나 문법만 가르치고 말을 안 가르쳐요. 장·단(長·短) 발음의 문제, 화법, 언어 구사 등등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 바른말을 할 줄 알겠어요?” 全선배의 우리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진단이다. “우리말에 대한 학교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KBS한국어연구원 같은데서 우리말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그곳에서 나오는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처방전까지 제시한다.

全英雨 선배는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화법분야 개척자이면서 40여 년을 오직 이 화법연구에만 전념하고 있다. 1962년에 펴낸 ‘표준 한국어 발음사전’ 이후 20여권에 이르는 저서가 화술

과 화법, 바른 말 사용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최근에는 토의, 토론과 대화 능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을 출판했고 지금은 ‘적극적인 듣기’를 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고회를 맞았음에도 화법 연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는

“국어교육은 방송이 앞장서야 합니다”



다. 퇴직한지 20년이 넘은 요즘에도 수원대학교와 충남에 있는 신성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는가 하면 국립국어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에서 올바른 우리 말 사용과 화법, 화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방송들이 너무 들떠 있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고 묻자 서울 대공원 산책로나 대모산, 구룡산을 등산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 그리고 쉬 없이 일하는 것이 건강법이라고 설명

여러 현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방송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새롭게 변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해야 할 면도 있다”면서 “외국의 방송들은 차분하게 방송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들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흥분해 있어서 방송을 듣는 청취자나 시청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 하고 있다”고 평한다.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 방송이 해야

全 선배는 1934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태어났다. 순 서울 토박이다. 1954년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과 2학년 재학중에 KBS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입사 동기생으로는 전 국회의원 故 최재구씨와 민속학자 심우송씨 등이다. 방송에서 30년, 대학 강단에서 20년간 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언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법에 맞게 방송을 해야 하죠. 토시를 빼고 방송할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상으로 ~을 마치겠습니다>할 때 <으로>를 빼고 방송하는 경우 등입니다. 방송마다 발음도 제 각각입니다. 국어 교육은 방송이 앞장서야 합니다.” 라고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과 보급을 위한 방송의 역할을 강조한다.

(글 / 윤기호, 사진 / 이종문)

방송시평

매년 9월이 되면 한 때에는 빌리 본 악단의 경쾌한 멜로디 ‘9월이 오면 (Come September)’이 거리에 흘러넘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음을 알리며 수학의 기쁨과 함께 다가올 추석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며 즐겁게 하곤 했다.

그러나 올 9월은 전혀 뜻하지 아니한 몇 가지 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의 정체성에 항상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 광고이다. KBS는 공영방송이면서도 주 수입의 약 7할이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여론의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광고가 이번에는 바깥이 아닌



김종건 (전 편성실장)

KBS 자체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최근 여러 가지 원인으로 KBS의 광고 수입이 예상외로 부진하자 이사회에서 광고공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 항의 방문을 하고 또한 카메라까지 동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지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KBS사장이 감사를 표명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개혁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실 분들이 반개혁 중에서도 가장 반개혁적인 행동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니 무어라고 할 말이 없다. 흡사 지난 세월에 있었던 삼류 언론의 행태

를 보는 것 같아서 입맛이 영 쓰다. 2TV가 광고를 하는 한 광고 유치를 위한 상업적 내용을 다룰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KBS의 공영성과 공공성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차제에 KBS의 수입구조를 포함하여 매체와 채널의 수, 그리고 각 채널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KBS의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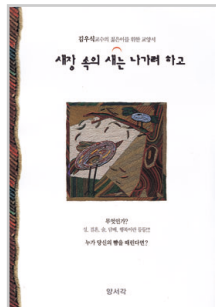
그러드니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반개혁적인 경향이 늘고 있어 가을 개편 때 미숙한 진행자를 전부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떠한 사람이 미숙한 진행자란 말인가?

정부의 시책에 찬성하고 옹호하는 발언만 유도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예 원천 봉쇄하는 진행자가 숙련된 진행자란 뜻인가? 정말 세련되지 못하고 미숙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겸손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현실을 내다 보자.

이 나라의 리더라고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지적했듯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듣는 우매함과 오만함과 무지가 이 나라의 앞날을 잘못 이끌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초가을에 나를 가장 슬프게 한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신간안내



‘새장 속에 새는 나가려 하고’

저자 : 김우식 사우(인덕대 교수)

이 책은 인생의 선배로서 저자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26년간 (TBC·KBS) 방송현장에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현재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얻은 삶의 진실을 글로서 풀어내고 있다. 이책에 담겨 있는 풍부한 지식과 삶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진지함에서 우러난 깊은 성찰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마음의 양식이 되리라 믿는다. (김택배 인덕대학 학생의 추천의 글 중에서)

양서각 발행, 신국판, 224쪽, 값 8,000원



알림

KBS사우회 바둑대회

KBS 사우회 바둑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4, 10, 26 (화) 오전1 1:00
- 장 소 : 신대방 삼거리기원 (Tel. 823-1729)
- 교통편 :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길 건너 좌측으로 (3분거리)

사보·홈페이지 원고 모집

매월 발간하는 사보와 항상 떠 있는 홈페이지에 실릴 회우 여러분의 원고를 환영합니다.

- ◆ 테마 : 시사, 회고기록, 역사물,시평, 논평, 제언, 수필, 기행문, 생활·가족이야기, 건강관련 체험기, 희귀한 사진, 회원. 가족 동정, 시, 콩트(연재물도 가능)
- ◆ 수량 : 200자 원고지 5장 이내 또는 A4용지 1장 정도
- ◆ 접수처 : (우) 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07호 E-mail : kbssau@yahoo.co.kr 홈페이지 : www.kbssau.or.kr Fax : (02)3210-1449
- ◆ 마감 : 회보 - 매달 15일까지, 홈페이지 - 수시